

기고

윤신근

수의사·동물학박사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



티킵·미니 강아지, 찻잔 속의 비극

소형 또는 초소형 반려견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반려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단독주택에 살면 견종을 선택할 때 좀 더 자유롭겠으나 아파트, 빌라 등에 산다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공간 문제도 고려해 소형 또는 초소형 반려견을 키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일부의 생각이다. 기왕 소형 견종을 키울 바에 그야말로 인형처럼 깡찍하고 앙증맞은 반려견을 원하는 사람이 적잖다.

그런 '수요'를 노려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 '티킵 (Tea Cup) 강아지'다. 몰티즈, 푸들, 시추, 포메라니안 등 인기 초소형견 중에서도 몸집이 아주 작은 아이들을 말한다. 일부 분양업자는 이들을 판매하며 "다 자라도 '티킵'(찻잔)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다"고 반려인을 유혹했다. 티킵 강아지는 최대한 작은 것을 선호하는 기본 심리에 남과 다른 '특별한 것'에 대한 바람까지 더해져 해당 견종 평균 분양가보다

훨씬 비쌌지만,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문제는 티킵 강아지가 결코 '정상'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각 견종에는 미국(AKC)이나 영국(KC) 등 반려견 선진국 클럽에서 인정하는 '표준 사이즈'가 있다. 그보다 커서도 안 되지만, 작아도 실격이다. 흔히 말하는 '순종'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필자는 '도그 쇼'에 출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으로 키운다면 순종이든, 혼종(잡종)이든 무슨 상

관이나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그러나 순종 판정 여부를 떠나 수의사로서 정상 사이즈에 훨씬 못 미치는 티킵 강아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싶다. 티킵 강아지는 '탄생'부터 문제가 있다. '근친교배'를 우선 꼽을 수 있다. 몸집이 작은 새끼를 번식하려면 당연히 몸집이 작은 암컷과 수컷을 교배해야 한다. 그런 암수를 구하기 쉽지 않으니 일부 업자는 남매를, 새끼와 아빠 또는 엄마를 교배시키는 '패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출산 예정일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제왕절개로 태아를 꺼낸다는 얘기도 있다. 사람도 그렇지만 반려견도 새끼가 예정일보다 일찍 나오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돌봐줘야 하는데 정반대인 셈이다. 가장 손쉽게 저질러지는 일이 한창 어미 젖을 먹으며 성장해야 할 때 일부러 젖을 일찍 떼어 정상적인 크기의 강아지로 자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젖을 떼 다음에도 사료를 죽지 않을 정도만 준다. 성장 억제 호르몬을 투여하기도 한다. 반려견을 고를 때 동배 강아지 중 발육이 가장 좋은 아이를 선택하는 것은 불분명하다. 그런 아이가 건강하고 성격도 활발하기 때문이다. 근친교배, 고의 제왕절개, 이른 이유(離乳) 등으로 탄생, 아니 억지로 만들어진 티킵 강아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근친교배로 태어났다면 각종 유

전 질환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향문이 없거나 입천장에 구멍이 뚫리기도 한다. 구순구개열(언청이), 생식기나 두개골 이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형이 아니더라도 병약한 것은 당연하다. 보통 반려견처럼 10~15년까지 살지 못하고, 불과 3~4년 만에 죽고 만다. 비판이 이어지면서 티킵 강아지는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아직도 인터넷에서 '티킵 강아지'를 검색하면 분양 글이 적잖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요즘은 '미니'를 붙인 강아지 분양 글도 많다. '미니 푸들' '미니 몰티즈' '미니 포메라니안'... 역시 각 견종 평균 사이즈보다 작다는 것을 한껏 강조한 표현이다. 컵 안에서 머리를 빼꼼히 내밀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 그런 사진을 보면 눈이 가고, 탐이 나는 것은 인자상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생명을 학대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수요가 없다면 공급은 사라지지 마련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기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모두가 앞장서야

살다보면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남의 행복은 등한시 하면서 생활하고 나 살기도 팍팍하고 힘겨운데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우리네의 삶이며, 행복하고 싶으면 채우기만 하지 말고 비우고 남에게 채워주어야 남친다. 주위를 둘러보면 참 좋은 사람이 많이 있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기만 좋아하는 바보 같은 사람, 항상 당하고 살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 자신이 부끄럽고 못나 보이지만 그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까이

곳에서나 행복감을 느낀다. 물론 그런 반면에는 늘 실망감을 주는 사람도 있으며 보기만 해도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 차라리 연락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하고 상념 해 본다. 남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봄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설 것이다.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

을 주는 내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모두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행복은 배려하는 나로부터 전염되는 행복한 마음의 바이러스이다. 짧은 순간 짧은 한마디에서도 서로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느낌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오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 따뜻한 한마디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나도 또한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내게 행복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나도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활했으면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만나지만 진정으로 그분들에게 조그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본다. 행복이란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남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행복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행복은 자격증처럼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잘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행복은 출발하듯 행복은 항상 나 보단 우리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동행하면서 생활했으면 한다. 국종균/광주서부소방서현장지휘담당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